

<2022년 2월 8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말씀 시작>

오늘은 2022년 2월 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준비했어요? 오늘은 특히 아픈 사람들 위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픈 사람 아마 거의 해당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육신 아픈 것과 영적인 모든 아픈 것 해당되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서 황금천국에 사는 영이 아닌 이상은 육신도 마음도 영적도 다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완전한 천국을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지상은 육신이라고 해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에 가서 병듦과 신음함과 배고픔 아픔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세계에서는 먼저 그래도 하나님 법칙, 뜻에 의해서 만드는 대로 천국이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지구 세상 천지만물 창조하셨습니다. 만들어서 천국이라 할 수 있지만 완전한 천국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해도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하늘나라 같이 썩지도 않고 부패 되지도 않고 완전한 영원한 세계가 될 수 없다. 지구상에는 하나님 창조한 천지만물도 썩고 죽고 신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물도 썩고 그리고 나무도 썩고 죽고 이러한 것이 하나의 고통의 지옥들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든 육신들도 완전한 천국은 안된다. 아무리 만들어도. 잘 안됩니다. 만들어도 절대적인 천국은 안 된다. 내가 겪었거든. 선생님도 그런데 일반 사람들 오죽하겠냐. 선생님도 고통 많이 겪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아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상상도 못 하게 고통 겪은 사람이에요. 지구상에서 내가 제일 많이 고통 겪었다

할 정도까지 극적인 고통, 아픔, 몸부림, 배고픔, 병도 앓아보고 그러므로 선생님은 지구상에는 완전한 천국 만들 수 없다. 알아보니 그러하다.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지.

하나님 만든 지구 세상, 천지 만물도 완전한 천국이 못 된다. 완전한 천국은 절대 병듦 아픔 죽는 것 썩는 것 신음 변함이 없거든. 그래서 천국으로 가려 하는 거예요. 육으로 안되고 영으로 간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절대적인 뜻대로 해야 절대적인 하나님과 같은 존재자가 되어서 영이 하늘나라 간다. 천국에 간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그래도 만들면 만들기 전에는 지옥이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만들었는데도 지옥이었습시다. 월명동 골짜기 살 때 풀밭, 뱀이 우글거리는 곳인데 안 물린 것이 기적이에요. 동네 사람 뱀 물린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백 마리가 확인됐죠? 다 잡아죽였어요. 안 하면 많은 사람 물려서 못 삽니다. 우리 개발할 때 밭 파면 우글우글. 어느 때는 15마리 이상 뛰어다니더라고 뱀이. 잔디밭 밭에서. 산에도 우글우글. 이런 세상에서 뱀 골짜기에서 살았어요. 부엌에도 밤에도 뱀. 우글거렸어요, 뱀이. 큰 뱀은 팔뚝만하고 아주 큰 것은 허벅지만 하고. 이런 뱀들 우글거려서 이런 곳에서 사니 지옥 같았죠. 풀밭 가시밭 썩은 골짜. 하나님 창조 해놓았는데도 역시 지옥이라고 나는 표현했어요.

여러분도 나이 먹은 사람들 옛날 개발 안 된 곳 보면 서울도 지옥 환경. 서울 100년 전 사진 봤죠? 100년 전 보니까 석막리가 비슷하더라고. 진산면 금산이랑 비슷하더라고. 다 썩은 집들 함석집. 그냥 짚으로 엮은 집들. 똑같은 시골이었어요. 시골 사람들 다시 집 짓고 사니 서울이 된 거예요. 서울도 지옥, 대전도 부산도 광주도 강원

도 다 지옥이었어요. 신랄한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준다고 했어요. 아침 새벽기도 갈 때 이런 지옥.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제2 창조를 하면 그래도 지옥 같은 곳이 천국 된다. 지옥 얘기를 하면 나는 옛날 생각들 깨달아져요. 옛날집 150년 되던 집 살던 때,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생각나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비는 세지, 모기는 물지, 한없이 뜯어먹는 벼룩 밤새도록 7남매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어요. 하도 많아서. 한 바가지씩 나왔어요. 무는 벼룩.

옛날 집 봐요. 저 집 내가 때려 부숴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이 회복됐을 때, 회심했을 때, 예수님께 모든 죄를 회복하고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 하지 않고 다른데 돈 벌고 취직해서 산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저 집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저주의 집에서 산다고 했는데 우리는 천국에서 산다고 했어요.

아무리 예수 그렇게 잘 믿고 나름대로 새벽에 눈물겹게 기도하고 성령 불 뜨끈뜨끈하게 받아서 타죽는다 했어요. 나도 성령 불 받고 어머니도 겨울이라도 춥지 않다 했어요. 그런데도 벼룩이 물고 이가 물고. 형제들끼리 두가 많이 잡냐고 하면서 서로 끼우고 했어요. 그래서 진드기가 물면 빈대가 붙면 그렇게 간지러워요. 피부병같이 미치게 간지러워요. 벼룩은 따끔따끔하고, 이, 빈대, 벼룩, 이것이 세마리가 막 뜯어먹는 거예요. 너무 무섭게. 그다음에 모기.

저 집을 결국은 예수님께 회복하고 회심하고 주님만 평생 따라다녔다 믿고 섬기겠다고 할 때 어머니 아버지 밭에 갔을 때 형제들 설득시켜서 다 때려 부숴했습니다. 완전 때려 부수고 3일 동안 끌어다가

앞산에 쌓아버렸습니다. 저 터를 계속 낮췄습니다. 지금 포크레인으로 2시간이면 싹 파내죠. 6개월 동안 터를 파냈어요. 때려 부수고, 완전히 없애버렸어. 지옥을 없애버렸어. 다시금 집을 지었잖아. 함석 집을 다시금 지은 거예요. 새로운 집을. 저 집을 지어놨더니 천국이 되었어. 벼룩이 한마디로 이도 없고, 깨끗이 해놨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없죠. 저게 천국이라고 사는 거예요, 이제. 저기서 살 때 보람있게 천국이라고 하고 사람들 와보라고 하고 천국 만들어놨다고 모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섬기며 다시금 더 새로운 역사 일어났어요. 새로운 역사로 나오면서 저것도 때려 부셨습니다. 10년 살고 때려 부셨어요. 더 차원 높으니까.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때려 부수고, 지금 살고 있는 청기화를 하나님이 성자가 가면서 지어줬습니다.

한 차원 높일 때 이렇게 다르죠. 그마만큼 만들 때 이마만큼 차원이 높아진다. 한 차원 만들 때 이렇게 차원이 높아집니다. 천국의 세계도 이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국 나라 가도 1차원, 2차원, 3차원 구약의 천국, 신약의 천국, 성약의 천국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면 천국 되고 안 만들면 지옥 된다. 마음만 천국이면 뭐하냐 환경 천국 만들어야지. 환경만 천국이면 뭐하냐 마음 지옥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절대 믿고 사랑하며 주의 말씀 듣고 변화되어서 육신도 천국 돼야지. 육신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점진적으로 환경 천국으로 확 만들었어. 이만치 만들면 더 이상 만들 수 없습니다. 족하는 거예요. 환경천국을 만들어놨어요. 이와 같이 환경의 천국을 만들어놨어요. 이정도면 됐다고 하나님 했어요. 환경 천국 만들어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이와 같이 이 수준으로 만들면 돼요. 절대적인 돌 같은 믿음, 절대적

인 사랑, 절대적 하나님 절대 믿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흔들려서 지옥 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어요. 어떤 일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절대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안 믿고 섬기지 않고 흑암 세계 살면 이젠 복직할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아픈 자들 아프면 지옥이다. 아까 개발하지 않은 초가집 세계. 그러니 고통 안 받을 수 없어. 건강하면 천국이다. 선생 70일 못 먹고 쓰러졌을 때 그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고통 중에 배고픈 고통과 병든 고통이 최고 크구나. 내가 당해보니까. 그대로 겪으니까. 못 먹으니까 배고픈 고통이 오고, 아프더라고. 그래서 두 가지 고통이 크다. 그리고 영적으로서는 말씀 못 들으면 육신 밥 못 먹은 고통과 똑같다. 그래서 아프다. 70일 굶으면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성령도 예수님도 그때 큰 기도를 하라. 앞으로 큰 섭리를 해야 하니 큰 기도를 하라. 그때 70일 기도를 한 거예요. 그 4가지 고통을 면했죠. 배고픈 고통 병든 고통 면했고 영적 빈곤 고통 배고픈 고통. 말씀 충만하니까. 말씀 무한히 지구촌 줄 수 있는 말씀 있고, 영적 병 벗어났으니 4가지 고통 몸부림치며 벗어났습니다. 내가 먼저 겪고 여러분도 가르쳐서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많죠. 아직도. 충분히 벗어날 정도로 말씀 쫓았습니다.

아프면 지옥이다. 건강하면 천국이다. 편지 오는 사람만 해도 엄청납니다. 안 오는 사람까지 하면 많죠. 육신 아픔과 고통이 너무 많아요. 밤새우며 몸부림치고. 이 아픈 고통들 보면 너무 많아요. 신음 소리가 너무 크고 아토피 중심 해서 피부병, 두려운 고통, 불면증, 잠 못 자고, 신경성 두통, 우울증, 조울증 걸리면 다 포기하고 죽고 싶고, 대상포진, 면역성 떨어져서 나는 병들. 너무 과로하면 안 돼

요. 하나님 일도 너무 피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위병 간암, 신장암, 장병, 장암, 피부암, 근종병, 각종 염증 폐병 정신병 환자들. 병에 매인 자들, 귀신에 걸린 자 사탄에 걸린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 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을 사탄에 매인 바 된 자들 풀어 주러왔다. 안식일도 상관없다. 이들 풀어서 안식일 지키게 해야 하지 않겠냐. 내가 안식일 주인으로 왔는데 하나님 예수님 쓰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 주인 하나님이잖아.

그리고 매여있는 자들 풀어주러왔다. 히브리서 2:15, 누가복음 13:16. 사탄에게 매인 자를 풀어주러 왔다. 베드로에게도 천국열쇠 준다. 네가 매인 자 풀어주면 풀릴 것이고 묶으면 묶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이 사망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있을 수 없는 그리스도니라. 예수님 사망권에 있었죠. 하나님이 풀어서 나오게 했죠. 또 주는 사망권에 있는 자를 풀어주고 그거 하러 왔으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건강하도록 해야 되겠죠? 기도는 일이다.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배터리 저장량이 많지 않아요. 쓰다 보면 금방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발전소와 연결된 것이 하루 종일 써도 괜찮잖아. 배터리는 저장량이 얼마 안 돼. 우리 몸 배터리에요. 저장량이 얼마 안 되니 쓰면 금방 떨어져요. 운동하면 튼튼해서도 좋아지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운동하면 과로를 풀어버려요. 그리고 운동해서 튼튼케 만들어 몸을. 두 가지가 있거든? 배고프면 속 쓰린 것 없어지는데 동시에 영양이 확 풀어지듯이.

선생님 뇌에 대해서 아픈 사람에 대해서 대게 알고. 하나님 주신 뇌 갖고 하면 거진 다 알아요. 뇌 갖고서 천국의 세계 가잖아. 뇌로 가는 거예요. 정신 하나도 없으면 못 가요. 정신의 세계 영계로 가니까. 뇌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건강 배워야 해요. 건강 무조건 배워야 해. 건강관리 선생님 어떻게 저렇게 하나. 건강 40년 배웠어. 예수님 하나님 지금도 배워요. 건강 비법 배우니 이정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는지 안 늙는지 뇌가 상처 안 되는지, 선생님 얼마나 속 썩겠습니까. 충격도 많이 받고 일반 사람 벌써 뇌 진탕 나서 죽었다니까. 비법이 있어요. 나같이 하면 나같이 튼튼하겠죠. 여러분들 봐. 지금 그렇지만 50대 되니 막 늙기 시작하죠. 얼굴 형이 막 변하죠. 70대 80대 가봐. 그때 꼬부라져서 일어나질 못해요. 자꾸 배워야 해요, 건강 비법을. 나 3일 동안 거진 안 먹었어요. 그런데 거진 표 안 나잖아. 환경을 몸부림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표현할 수 없어요. 만들 때 같이 만들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여하는 자가 복 있다. 그 몸부림을 치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병들어 쓰러져서 알기 때문에, 도둑을 맞아봐야 집을 밤새도록 지켜요. 당해봐야.

여러분이 홍수 장마 때 무너나 봐야 독대를 완전히 콘크리트를 하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대강합니다. 당해보면 절대 다르게 해버려요. 선생님이 5번 넘어지니 6번째까지 계속 튼튼하게 쌓았잖아. 또 다시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마지막 방법은 완전히 극과 극의 세계로 영원히 안 무너지게 쌓자 하고 쌓은 거예요. 20년 되도 안 무너지게 쌓았잖아. 여러분도 고통받아보니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섭리만 될 것이 아니라 몸도 관리해야겠다. 안 되겠다. 툭 자르고 하는 거야 툭 자르고.

어제도 보고 왔는데 구미인가 울산 쪽에서 캠퍼스 지도자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코로나 걸렸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 다 만났는데 다 안 걸리고 하나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능력과 권세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극적으로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자고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기도했는데 2시 3시까지 기도했는데 아픈 사람 기도가 20분에서 30분 해지더라고,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아픈 사람의 아픔 알겠지만 아픈 사람 보라고. 너무 처절해요. 건강하게 뛰어다니던 게 그냥 얼굴 바짝 말라 가지고 안타까워요.

육신도 건강 영도 건강. 몸도 화장하고 닦고 옷을 입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보통 사람 일꾼 같지 않아요? 거기 같이 생겼고 단장할수록 멋쟁이 되듯이 여러분들도 자꾸 신앙 단장 건강 단장 몸부림쳐야 합니다. 건강을 세우기 위해서 헛바닥을 깨물면서 낡은 사람이에요. 그 단계 안 겪어보면 모릅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아픈 것을 생각해야 해요. 아프면 큰일난다고. 사형선고도 받아봤거든 내가. 선생님 사형선고를 받아본 사람이에요 이미. 20분 30분 뒤에 죽는다고 숨 떨어지는 순간만 기다려본 사람이에요. 그 대신 건강, 건강. 하나님 극적으로 축복해줘서 건강해진 거예요. 축복만 해준 것이 아니고 이를 갈며 뼈를 갈며 지옥 고통받으며 건강 신경 쓴 사람이에요. 그냥 건강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건강해지고 여러분들 내가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사탄들 모두 기도하고. 사탄 악 이런 영향 받지 않게 사생결단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될 수 있으면 죽을 때까지 이 기도가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갈 때 기도길이 막히면 숨이 막힌다고 했어요. 이 길이 막히지 않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길 막히면 마치 기도가 막히는 것과 똑같다. 바로 영향이 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바로 영향이 있다. 전체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 국방 문제 이런 것 기도를 아주 강렬하게 해야합니다. 기도길 막히면 하루만 기도 안 해봐 끔찍하지. 이틀 안 해봐 벌써 적들이 넘실거리고 쳐다봅니다.

기도 강렬하게 강력히 해야 합니다. 설교 어떻게 해야 능력이 있느냐. 설교는 힘있게 해야 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힘있게 말씀 전하니까 증거하니까 표적이 따랐다고 했죠? 그래서 능력, 권세의 말씀의 권세라는 것, 권세있는 말씀도 슬슬하면 힘이 안 나갑니다. 이런 것도 힘있게 받으면 깨져. 기도는 힘있게 박력 있게 강렬하게. 이러므로 우리는 사탄, 마귀 악의 세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매인 것 끊기 위해서 자기에게 매인 것 끊기 위해 몸부림쳐야 해요. 이와 같이 힘있게 능력있게 열심히 해서 풀림을 받는 자가 되고 풀어주니 열심히 해요.

요즘에 좋아하는 것은 선생님이 새벽에 말씀해주는 것 너무 좋다고 희망이라고 선생님 말씀하니까. 너무 좌절됐었다고 선생님 말씀 안 전하니까. 말씀 하는 가운데 다 나아져요. 평소에 기도를 엄청나게 지금 하거든. 그 기도 때문에 행한대로 대해주는 거예요. 일한 만큼 대해주듯이. 아픈 자들이 너무 많고 많아서 선생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건강한 사람 전체가 같이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자고. 영적 아픈 자, 육적 아픈 자.

기도는 표가 나요. 사탄으로부터 매인 것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 강력히 계속해야 합니다. 전체가. 그래야 자기 것도 풀어지는 거예요. 자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 풀어져야 자기도 풀어지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은 나니까. 대국에 묶이지 않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대국한테 물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한 번에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 안 당해봐서 몰라요. 하나님이 백성이 돼보라고 얼마나 괴롭겠냐고. 하나님 안 당하니까. 그것 좀 참고해달라고. 하나님 보낸 자 심정 좀 알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그 기도 받았다. 화가 나게 하나님 만드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왜 안 해주냐고. “알았어. 내가 분노가 일어나서 해줄게.” 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해야 해요. 쇼부 보는 기도. 하나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드러운 기도 안 돼요. 강력한 기도, 사생결단 내리는 기도. 칼질하는 기도. 포탄이 터지는 기도. 충격적인 기도. 하나님 화가 나는 기도, 분노하는 기도를 막 해버려야 해요. 내가 가만있지 않겠다. 가만있지 않고 하나님 뒤집어 놔잖아. 강력한 기도 간구를 하고 실망을 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할 것이 없다.

작은 형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어디서 죽나 의논했어요. 마지막 선생님에게 와서 내가 기도했어요. 한 달만 보자. 그만큼 공적 쌓고 기도의 일을 하라. 지금 손 안 떨고 허리 펴고 말도 합니다. 딸에게 제시했는데 ‘이제 벗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꿈에서. ‘이제 벗어났다.’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하루 일해서 얼마나 표나겠어. 한 달 해야 표나잖아.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해지니까. 그것은 낫기 힘듭니다, 대상포진은. 파킨슨 병이라고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치매 와서 정신 없어지는 병인데 생각나게 해주더라고. 불가능한데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한 게 없잖아. 말씀 받아들이면 빨리 낫더라고.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낸 자와 따로 놀면 안 돼요. 그와 같이 일체된 신부여야 해요. 하나님 보낸 자 모세와 일체 안 됐을 때 신광야에서 고통받고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일체된 사람만 가나안 복지 갔잖아요. 하나님 보낸 자와 일체된 상태 그대로에서 하나님과 일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개입 못 해요. 나도 절대적으로 못하면 사탄 온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보낸 자와 일체, 하나님과 일체. 일체된 상태에서 일체 되는 거예요. 일체된 상태에서 1000년 동안 사는 것입니다. 이만치 말씀 듣고 받아들였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사랑하신 하나님 이들 위해서 전체 사람이 기도합니다. 신앙 아픈 자, 믿음에 병든 사람들 모든 말씀 근본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 병든 사람 기도합니다. 너희 모두 해당된다, 전체가. 약한 자 은혜 은총 주셔서 건강함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아니라 한 달 20일이라도 열심히 자기 병 위해서 약수 먹고 하오니 건강하기 위해서 말씀 듣사오니, 말씀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신이니 그 말씀 받았을 때 마귀 귀신 악이 물러가고 각종 신경성 대상포진, 모든 육체 병들, 뇌병, 신경성 병, 염증병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 더해주시옵소서. 암 병, 무서운 병들 능력과 권능으로 치료해주시고 함께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 건강, 육신 건강 옛날 것 다 때려 부수고 새집 또 새것 또 짓듯이 이런 것으로 보다 천국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태에서 천국 되게. 완전한 천국은 이 지구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천국은. 이 지구상 완전한 천국은 지구상에서 영혼이 한다고 했습니다. 인생 100년에서 종지부 찍게 만들었습니다. 육신 아픈 것 치료, 건강케. 성령이 건강케 해주시고. 우리 모두 원하니 그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네가 낫기를 원하노라. 나아져라. 귀신, 사탄, 마귀 물러가고 없어져라. 하나님 전능자 말씀 받아들이고 이들이 행하여 성령으로 치유해주시고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해주셔서 암이고 대상포진이고 어떤 영적 병 정신적 병이고 무지의 병이고 나아지고 나아질지어다. 네 영혼이 잘됨같이 육신도 잘 되리라. 하나님 일 너무 하다가 병든 자도 있고 너무 악의 세계 고통받다가 염려 받다가 아픈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치료해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세계 하나님의 모든 것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는 신부들의 삶이 영영하게. 나와 같이 일체 되고 하나님과 일체된 몸이 되어서 시대 살아나가게 축복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월명동 골짜기 하나님 곳을 천국 되게 하였으니 감사하고 우리들도 이마만큼 좋아지게 육신들 만들어졌습니다. 구시대 풀어줘서 새 시대 왔으니 감사 영광 돌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신유집회 합니다. 건강함 강건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병 나았다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고하고 간구했으니 늘 구하라. 간구하라. 하나님 보낸 자 이름 갖고 구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 치료받아라. 각자 모두 건강해야 하나님 뜻 펴니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들 육도 건강 영도 건강하

게 해줘서 회복되고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무리 말씀>

어제 참으로 힘든 애들 도와줘서 감사하다. 어려움 당한 자들 갚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뛰고 달려서 수요 말씀 듣고 해요. 수요 말씀 아주 멋진 영화 한 편 만들어서 냈습니다. 몸부림 치고 만든 환경 일부 내보내기로 했어요. 그러하면 여러분들 건강히 오늘 말씀 떨어졌으니 건강하게 표가 나게 도와줄 거예요. 암이 됐든지 어떤 병이 됐든지 하나님 좋아지게 할 수밖에 없어. 안녕